

# 임성재 '아시아 선수 최초' 마스터스 준우승

15언더파 273타 캐머런 스미스와 공동 2위  
더스틴 존슨 20언더파 우승 우즈 공동 38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상 최초로 아시아 국적의 신인상 수상 기록을 남긴 임성재(22)가 또 하나의 아시아 남자 골퍼에 이정표를 세웠다.

임성재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1,150만달러)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한 임성재는 캐머런 스미스(호주)와 함께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1위 더스틴 존슨(미국)의 20언더파 268타와는 5타 차이가 났다. 공동 2위 상금은 101만 2,000달러(약 11억 2,000만원)다.

임성재는 이로써 '명인 열전'으로 불리는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첫 아시아 국적 선수가 됐다.

아시아 선수로 이 대회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선수는 지난해까지 2004년 3위에 오른 최경주(50)였다.

3라운드까지 존슨이 4타 뒤진 공동 2위였던 임성재는 한국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최종 라운드 챔피언으로 이날 4라운드를 시작했다.

경기 초반에는 존슨을 1타 차까지 압박하며 역전 분위기를 띄웠다.

존슨이 4, 5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써냈고, 임성재는 2, 3번 홀에서 연달아 2m가 안 되는 거리에서 버디를 잡아냈다.

특히 존슨은 현재 세계 랭킹 1위지만 메이저 대회 3라운드까지 선두였을 때는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징크스가 있는 선수였다.

이 대회 전까지 2010년, 2015년, 2018년 US오픈과 올해 PGA 챔피언십까지 네 차례나 3라운드 선두를 마지막 날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임성재에게는 6번 홀(파3)이 뼈아팠다. 이 홀에서 약 1.2m 짧은 거리의 파 퍼트를 놓쳤고, 반면 존슨은 그보다 조금 더 먼 2m 버

순위	선수	언더파	타수
1	더스틴 존슨(미국)	-20	268(65-70-65-68)
2	임성재(한국)	-15	273(66-70-68-69)
3	캐머런 스미스(호주)	-15	(67-68-69-69)
4	저스틴 토머스(미국)	-12	276(66-69-71-70)
5	로리 매컬로이(북아일랜드)	-11	277(75-66-67-69)
T13	케빈 나(미국)	-8	280(73-69-69-70)
T29	강성훈(한국)	-3	285(75-69-71-70)
T34	김시우(한국)	-2	286(70-71-73-72)

\*T는 공동 순위 / 연합뉴스

디 퍼트를 넣고 순식간에 3타 차로 달아났다.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임성재는 7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범커로 향하면서 또 보기가 나왔다.

1타까지 좁혔던 간격이 다시 4타로 벌어지면서 맥이 풀렸고, 결국 이 간격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좁혀지지 않았다.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더스틴 존슨은 마스터스 토너먼트 사상 최초로 20언더파 우승을 달성했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 생애 처음으로 마스터스 챔피언에게 주는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됐다. 우승 상금은 207만달러(약 23억원)다.

마스터스 사상 최저타 우승 종전 기록은 1997년 타이거 우즈, 2015년 조던 스피스(이상 미국)가 세운 18언더파 270타였다.

스피스가 2015년 대회 도중 19언더파까지가 본 적이 있었지만 20언더파는 이날 존슨이 마스터스 사상 최초로 밟은 고지다.

존슨은 이번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24승을 달성했고, 메이저 대회에서는 2016년 6월 US오픈 이후 4년 5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골프 황제' 우즈는 이날 4타를 잃고 최종 합계 1언더파 287타, 공동 38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84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파이널라운드 끝난 뒤 임성재가 더스틴 존슨과 주먹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더스틴 존슨이 우승, 임성재가 준우승을 했다. /AFP-연합뉴스



KIA 1군 선수단 마무리 훈련 KIA 타이거즈 1군 선수단이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마무리 훈련을 시작했다. 선수단은 투수 조와 외야·포수조, 내야수조로 나뉘어 훈련을 소화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루친스키 vs 알칸타라 선발 맞대결

NC·두산 오늘 고척돔서 KS 1차전

2020년 한국프로야구 다승왕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던 드루 루친스키(32·NC 다이노스)와 라울 알칸타라(28·두산 베어스)가 한국시리즈(KS) 1차전에서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이동욱 NC 감독과 김태형 두산 감독은 16일 서울시 구로구 고척 스키야드에서 열린 2020 KBO 포스트시즌 KS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을 공개했다.

두 팀은 17일 오후 6시 30분 고척돔에서 KS 1차전을 벌인다.

예상대로 NC와 두산은 에이스를 1차전에 내세운다.

루친스키와 알칸타라는 KBO리그 2년 차다. KS는 올해 처음 치른다.

정규시즌에서 루친스키와 알칸타라는 '다



루친스키 알칸타라

승왕'을 놓고 경쟁했다.

앞서가던 루친스키가 10월에 2승을 추가하는 데 그치고, 알칸타라가 10월에 6승을 챙기면서, 알칸타라가 다시 1위에 올랐다.

알칸타라는 올해 20승 2패 평균자책점 2.54로 활약했다. 루친스키는 19승 5패 평균자책점 3.05를 올렸다.

상대 성적도 알칸타라가 앞선다.

알칸타라는 NC전에 4차례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2.63으로 호투했다.

루친스키의 두산전 성적은 3경기 1승 1패 평균자책점 3.50이다.

둘의 선발 맞대결에서도 승자는 알칸타라였다.

둘은 6월 10일 창원NC파크에서 한 차례 선발 투수로 맞붙었다.

당시 알칸타라는 7이닝 6피안타 1실점으로 승리를 챙겼고, 루친스키는 6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호투하고도 패전의 멍에를 썼다.

루친스키는 이번 KS 1차전에서 설욕을 노린다.

정규시즌을 1위로 마친 NC는 충분히 쉬면서 KS를 대비했다. 루친스키의 몸 상태도 매우 좋다.

루친스키는 "정규시즌 때처럼 등판을 준비하겠다"라고 평정심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광주 서구청 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 준우승

여자일반부 단체전 2위  
이정함 남자 개인전 '은'

지난달 제49회 회장배 전국남녀종목별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 우승을 거뒀던 광주 서구청이 2020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서구청은 최근 강원 양구문화체육관광에서 막을 내린 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단체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에 41-45로 패해 아쉽게 우승을 놓쳤다.

16강에서 충북도청(45-31), 8강에서 전남도청(45-36), 4강에서 한국국체대(45-41)

를 꺾고 결승에 올랐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최은숙, 강영미, 천진정이 나선 서구청은 1라운드를 3-3 동점으로 시작했으나 2라운드에서 8-10으로 뒤진 뒤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6라운드에서 25-27, 2점차까지 추격했으나 점수차를 좁히지 못하고 4점차 패배를 당했다.

서구청 이정함은 남자일반부 에페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8강에서 손태진(울산시펜싱협회)을 15-14로 꺾은 이정함은 4강에서 김상민(울산시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라 마세건(부산시청)을 만났다. 하지만 부상으로 기권하면서 준우승에 만족했다. /최진화 기자

시체육회 권하림 다이빙 태극마크



권하림

광주시체육회 권하림(21)이 2021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권하림의 태극마크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이후 세 번째다. 지난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는 김지욱(강원도청)과 함께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에 출전해 7위에 올랐다. 권하림은 도쿄행 마지막 출전권이 걸린 내년 4월 다이빙 월드컵에 도전할 예정이다. /최진화 기자